



서울대학교 뉴욕지역

골든클럽 회보

GOLDEN CLUB NEWSLETTER

FEBRUARY 2024

WE LEAD A HEALTHY AND HAPPY LIFE

VOL. 142



Acadia National Park에서 바라본 일출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며

클럽과 함께 10여년 새해를 맞아보니 특별한 감흥은 없지만, Acadia National Park 캠핑 때 캐딜락 산정에서 찍은 '미 본토에서 제일 일찍 뜨는해'를 꺼내 보면서 회원 여러분과 즐거운 한 해를 그려 봅니다. 지난 4년동안 Newsletter 편집장으로, 아무 것도 할게 없고 할 수도 없었던 펜데믹 기간에 Newsletter라도 제대로 만들어 보내드리자고, 한번도 빠지거나 늦춤없이 매월 초 여러 회원 가정에 회보가 도착되도록 회보편집을 주관해 온 윤현남 편집장이 개인적인 사유로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무척 섭섭하고 아쉽지만 지난 4년간의 공로에 감사드리며, 오순문 위원이 편집장 업무를 승계하여 주관하기로 하였습니다. 더불어 홍보분야에 경험 많고 해박한 손대홍 회원이 편집위원에 합류하여 더 많은 회원들께 읽혀지는 회보를 만들고 의기 투합하였습니다.

3월 22일(토) Double Tree Hotel 신년교례회 때는 정해민 고문님이 기증할 푸짐한 생선횃감으로 손대홍 회원이 '사시미코너'를 추가하여 여러분 입맛에 맞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행 회원들 위주로 Directory를 수정 보완하여 신년교례회 이전에 배포할 예정이며, 지난 3년간 늘어난 회원들의 면모와 인적 사항이 추가되고, 그동안 작고한 회원들도 '타계한 분들'에서 만나 볼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몸이 편찮고 거동이 불편하여 가족 또는 간병인의 도움에 의존하는 연세 많은 회원님들이 많이 계신데, 시간나는 데로 찾아뵙고 안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에 더욱 관심을 갖고 건강한 '청룡의 해' 갑진년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24년 신년교례회

골든클럽의 행사가 골프 / 야유회 / 하이킹 등 야외 행사가 위주가 되다 보니 겨울에는 다소 적조했습니다. 봄을 맞이 하면서 회원들 안부를 묻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신년교례를 아래와 같이 열게 되었으니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날짜: **2024년 3월 23일** (토요일) 오후 4시-9시

- 4-5: Cocktail Hour
- 5-5:45: 총회와 보고
- 5:45-6:45 Dinner
- 6:45-9: Entertainment

장소: Double Tree Hotel Grand Ballroom,
Fort Lee, NJ

회비: 1인당 \$120

특별출연:

- Sam Chung: Cello
- 신송은: 가야금
- 김기웅: 테너
- 정지은: 피아노



2023년 4월 1일 Tenafly에 위치한 Korea Community Center에서 열렸던 신년교례회



손대홍 회원의 재치있고 품격있는 사회로 진행된 3부순서

2023년 행사를 돌아보면서

■ 사무총장 김정필 (공대71)

1월에 18명이 참가한 플로리다 골프여행을 시작으로 4월1일에 80여명이 참석한 신년교례가 있었고 5월에는 Kaaterskill Falls 방문, 8월 17일에는 Alpine, NJ에 있는 Alpine pavillion에서 70여명이 참가하여 피크닉을 가졌다. 흥회장님의 주도로 4월과 11월에 두차례 하이킹을 가졌고, 8월과 11월에 각각 Zoom Seminar를 진행하였다, 골프대회는 4월부터 11월까지 Sunset Valley, Wallkill, Split Rock등 NY/NJ의 골프장에서 모두 247명이 참가하였다. 회원들의 노령화로 인한 건강과 코비드 이후에 잦아진 여행으로 인하여 각 대회별 참가인원 숫자가 32명정도로 줄어들어서 shotgun을 더 이상 요청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었다.

그리고 12월에는 32명이 참가하여 Myrtle Beach로 동계전지 훈련을 다녀왔다. Florida 여행보다 가까운 거리의 비용 등으로 2배의 많은 회원들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루었는데 다녀오신 분들의 반응이 워낙 좋아서 연례행사로 자리를 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 새로 등록하신 회원은 최한용 김충정 11월에 윤재옥 이상원 님들로 모두 6분이다. 매우 아쉽고 섭섭한 일은 6월 15일에 창립멤버이신 최철용 회장님 12월 25일에 최수용 회장님이 영면하신 것이었다. 여전히 우환 중에 계신 회원들이 여럿이 계셔서 회원 여러분들의 기도와 문안을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는 2월부터 당구모임과 바둑모임을 월1회 열고자 한다. 날짜와 장소는 단독방을 통하여 공지할 예정인데 새로운 행사에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

2023년 우수원고 시상

2023년 한 해 동안 골든클럽 회보를 위해 좋은 글을 보내주신 회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기 위해 예년처럼 각 편집위원이 즐겨 읽은 원고를 선정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모아 2023년 인기 원고를 선정했습니다. 금년 수상자는;

- Crying in H mart (송혜순)
- 암에 대한 단상 (오용호)
- Storming Mountain의 단풍 (여주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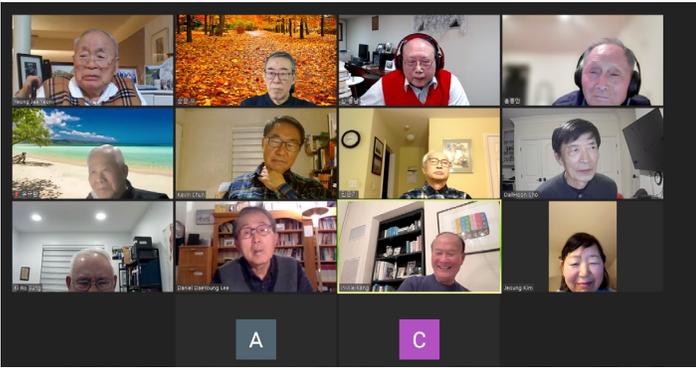
입니다. 수상자에게는 약소하지만 감사편지와 H Mart \$100 교환권을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공고

지난 4년동안 뉴스레터 편집장으로 수고하시던 윤희남 회원께서 개인사정으로 사임하셨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월호 부터 오순문 회원이 신임 편집장으로 수고하시게 되었으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또한 손대홍 회원이 뉴스레터 편집위원으로 함께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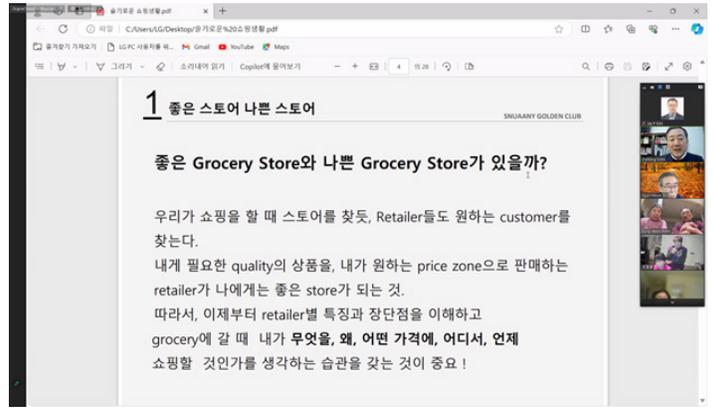
서울대 뉴욕지역 동창회에서 지난 1월2일 14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준행 회장님(공대 48)의 Online세미나가 있었습니다. 2024년 갑진년을 맞는 새해인사와 신년 메시지를 전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특히 세미나를 끝내며 “부인의 손을 꼭 잡고 다니라”는 당부의 말씀은 듣는 이들의 가슴에 큰 공명을 주었습니다.



송학린 회원이 지난 연말, 새해 인사차 이준행 회장님을 찾아뵙고 빠른 회복을 기원하며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다양한 주제와 특유의 재담으로 이준행 회장님과 재미있는 이야기를 풀어놓으며 이회장님의 웃음을 자아냈는데, 이준행 회장님은 송학린 회원의 방문에 감사하며, 빨리 건강을 회복하여 골든클럽 회원들과 만나보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월 12일 (금)에는 팔리세이드 팍에 있는 한상식당에서 올해 첫 편집위원 대면 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서 편집위원장 이임인사와 신임위원장 선임, 그리고 올해의 뉴스레터 편집방향과 새로운 필진 발굴 등에 관한 많은 의견 교환이 있었다. 참석하신 분들은 정해민 김병순 오순문 여주영 금영천 손대홍 윤현남 임호순 김정필 홍종만 (왼쪽부터).



1월 24일(수) 저녁 7시에는 손대홍 회원이 슬기로운 그로서리 쇼핑이라는 주제로 Zoom 세미나를 발표하였습니다. 14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이날 매우 유익한 정보를 많이 나누었는데, 손회원이 아래와 같이 강의를 요약해주었습니다. 이날 농치신 분을 위한 video가 준비되어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연락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그로서리 스토어가 있습니다. Costco, BJ's, Walmart, Target, Whole Foods Market, Wegmans, ShopRite, ACME, Trader Joe's, ALDI, H MART, HanNam Mart, Amazon...
여러분들은 어느 곳을 주로 이용하시나요? 여러 곳을 번갈아 가며 방문하시는지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기준을 갖고 각각의 스토어들을 방문하고 계신가요? 음식도 각자의 개성이 있고 장단점이 있듯, 그로서리 스토어들도 각자의 특징이 있고 이용하는 소비자에 따라 좋은 점과 불편한 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음식도 내게 맞지 않는다고 절대적으로 나쁜 음식이 아니듯 나에게 맞는 사람이 누구에게나 맛있는 음식이 아닐 수 있듯, 리테일 스토어들도 무조건 좋은 곳이 있거나 무조건 나쁜 곳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상황에 따라, 우리가 필요한 상품에 따라 상대적으로 나에게 맞는, 상품에 맞는 스토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상품을 살 것인가에 따라 싸게 살 수 있는 곳이 있고 더 좋은 품질의 상품을 살 수 있는 곳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잘 생각해보시면, 싸다고 샀지만 전부 소비를 하지 못해 아깝게 버려서 결국은 비싼 값에 산 결과가 된 경우도 있고, 처음보는 브랜드 상품의 가격이 너무 싸서 신뢰를 할 수 없어 굳이 그 옆의 비싼 상품을 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느 상품이 더 좋은 상품일까요? 그리고 Amazon과 같은 온라인 소매업체가 싸다고는 하는데 온라인 쇼핑에 자신이 없어 포기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온라인 그로서리 쇼핑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이제부터 온라인 쇼핑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 그로서리 쇼핑에 드는 비용이 두배는 높아진 것 같습니다.

글쎄 이런 주제에 어울리는 고사성어일지는 모르겠으나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백태(白戰不殆)라는 말이 있듯 리테일 스토어의 특징과 장단점을 알면 내게 가장 필요한 곳을 알아서 가장 좋은 가격에 가장 좋은 상품을 쇼핑할 수 있는 '슬기로운 그로서리 쇼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Mrytle Beach 골프여행을 다녀와서

■ 권정덕 /홍선경 (의대58)

지난 3년간 겨울추위도 피할 겸, Florida에 사는 SNU 동문들도 만날 겸 Golden Club 1월 하순 겨울여행에 참가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행선지가 Florida 대신 Myrtle Beach 로 변경됐다는 계획이 알려졌을 때 생각난 것이, 70년대 고등학교 친구들과 몇 년동안 갔던 South Carolina의 Myrtle Beach가 떠올랐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얀 굴 껍질로 덮여 있던 바닷가의 Oyster Bay Golf Course와 역세계 비오던 날 짧은 Island Green에서의 par shot으로 기억되는 Pawleys island 가 뇌리에 스쳤습니다. 지난 겨울 Florida에서 돌아오는 길에 Pawleys island에 들렸었는데, 30년 전 보다 너무 많은 주택들로 들어차 있어 그 Golf Course를 찾지 못하고 그냥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Golf Course 이름을 골프장이 아닌 지명, Pawleys Island라고 기억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 뉴욕 뉴저지 기온이 아침 저녁으로 몹시 쌀쌀해지고, golf course는 흠어져 쌓여있는 낙엽 때문에 골프공을 찾느라 짜증이 나는 계절이 오면 우리는 남쪽 나라의 golf course를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때마침 12월 중순에 마련된 Golden Club의 Myrtle Beach여행은 우리의 이러한 갈망을 바로 맞추어 채워준 계획인 것 같아 주저없이 참가하였습니다. Myrtle Beach trip은 Florida 보다 짧은 여정이기에 그룹 여행에 대여한 대형 Van을 이용 하느냐 또는 자기 차량을 이용 하느냐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돌아올 때 몇 곳을 들리면서 친척이나 친구들을 매년 만나고 왔기에 자기 차량 여행을 택하였습니다. 그런데 van 탑승 신청자가 많아져 저희 차에 골프채 두 개를 실을 수 있도록 홍종만 회장님께서 부탁하셨는데 이것을 시작으로 van을 타기로 했던 의대 동기 신두식 동문 부부가 집에서 아침 새벽 탑승 장소로 오기가 힘들어 전날 저녁 우리 집에서 자고 아침에 집합장소로 가기로 했는데, 짐을 싣다 보니 그냥 두 부부가 저희 차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렇게 하기로 하고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에 Mrs.홍종만께서 준비한 김밥과 따뜻한 떡을 받아가지고 네 명이 차 안에서 먹으면서 즐겁게 I-95 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 갔습니다. 가는 도중 가끔 비가 세차게 왔지만 어떤 면으로는 남쪽으로 가면서 계속되는 햇빛을 피할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우리가 Myrtle Beach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5시경, 대형 여행 Van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 하루 먼저 출발한 조달훈 부부께서 먼저 와 Check-in을 마치고 숙소를 지정한 곳으로 key를 받고 짐을 풀었습니다. 얼마 후 공용Van이 도착 하고 오후 7시반에 첫 저녁이 있으니 모자라는 수저를 가져 오라고 하셔서 가지고 그 맥으로

가보니 30 여명이 뻘뻘히 들어서 다른 숙소의 의자를 동원해도 모두 앉을 자리가 없어 몇 명은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준비된 저녁 메뉴가 무엇일까? 그것은 생각지도 못했던 우거지 갈비탕, 싱싱하게 알맞게 익은 총각김치, 윤이 나는 멸치볶음, 달콤새콤한 오이 고추 장아찌, 이름도 처음 듣는 명이 나물, 싱싱한 상추와 오이같은 음식을 Myrtle Beach에서 먹을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해 오신 Mrs. 홍의 노고와 음식 솜씨에 모두 감탄하며 우리는 정신없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외에 풍성한 맥주, 포도주와 과일 등으로 정말 즐거운 저녁식사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 특기할 것은 공용van을 운전해온 김문수씨와 Mrs 홍을 전적으로 도와주시는 Mrs 김문수씨와 여러 부인의 도움으로 설거지와 그릇을 Dish Washer에 채워넣고 다음날의 골프일정을 위해 밤9시에 일어나 각자 자기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후에 알았지만 van의 짐 자리가 부족한 것은 첫날 먹은 한국 음식, 특히 우거지 갈비탕 진국을 두 김치 컨테이너에 담아 온 Mrs.홍의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Legend Golf and Resort 에는 다섯개 Golf Course 가 있는데 Heathland는 조금 좋지않아 제외하고, 첫 날과 돌아오는 날은 Mooreland, 셋째날은Parkland ,둘째날은 Oyster Bay, 넷째날은 Heritage에서 치기로 되어 있는데, 이 Heritage가 제가 못잊어하던 Pawley Island 였습니다. 골프 팀은 남성은 white tee 와 gold tee 로 나뉘어졌고, 여성 팀은 2 four somes과 남녀혼성 한 팀으로 짜여져 있어 아는 사람들과 같이 칠 수도 있고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도 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동네 public course에서 주로 쳤던 우리에게는 낙엽을 말끔히 치워놓은 Resort golf course들이 인상적이었으며, Myrtle Beach 골프 코스들은 산뜻한 course로 돋보였고 course design도 재미있어 돈과 시간을 들여 멀리 온 보람을 느꼈습니다



아침 식사는 각 golf course 식당에서, 점심은 Legend 골프리조트에서 하고 칠 때는 두 시경에 골프 라운드 끝나고 식당에서 모여 하였고 다른 골프 장으로 원정갔을 때는 그 곳에서 준비한 런치박스나 샌드위치를 골프를 치면서 먹었습니다. 식당 음식은 다 입맛에 맞고 다양한 것이었으나 흥회장님 맥에서 먹는 저녁 반찬은 정말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Mrs. 흥은 매일 색다른 메뉴를 준비해 우리를 놀라고 또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첫째날은 먼저 얘기한 대로 우거지 갈비탕, 둘째날은 돼지족발, 셋째날은 불고기, 넷째 날은 불고기 떡볶이 와 돼지 김치찌개, 떠나기 전날은 Myrtle Beach 북쪽에서 사온 생굴과 Snow crab으로 seafood 만찬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Table 위에 수북히 쌓인 Crab leg을 미리 각자가 준비해온 cracker로 두드려 깨서 계살만 빼먹고 buckets 에서 부어놓은 싱싱한 생굴을 마음대로 퍼다가 고추장이나 타바스코 핫소스에 무쳐서 배가 부르도록 먹었으니 Seafood party가 아닌 문자 그대로 seafood feast 였습니다.

넷째날 저녁에는 이번 여행 중에 71 세 생일을 맞은 김승호 동문의 Birthday Party가 있었습니다. 이번 여행에는 처음부터 함께 한 28명 외에 김치갑 회원 일행 4명을 합쳐 모두 32 명이 되었습니다. 32명이 Happy Birthday 떼창을 부르고 케익을 잘라 후식으로 넉넉히 먹은 생일 축하연이었습니다. 김승호 동문 께서도 그렇게 많은 동료, 친우들로부터의 생일 축하하는 처음 이라고 흡족해 하셨습니다.

첫날 golf는 Moorland Golf Course 였는데 hole마다 dunes 가 있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둘째날은 50마일 북쪽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Oyster Bay golf course 였는데, 옛날 기억대로 들어가는 길 전체에 하얀 Oyster Shell이 깔려 있었습니다. 셋째날 골프는 Legend 자체의 Parkland course였는데, hole마다 Pine Tree wall로 쌓여 있었습니다

Albany, New York 근처에 있는 Pine Hill course를 연상하게 하는 course 였습니다. 넷째날 Heritage 8번 홀에 흑인 여인의 Statue와 무덤이 있어 이곳 플랜테이션에서 승화, 흑인들의 영혼을 추모 하는

것이라고 흥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Pawleys Island 에 있는 par 3 islands가 Heritage였는데, 30여년이 지난 후라서 그랬는지 제가 비 오는 날 저희 group에서 혼자 Island에 올라서 par shot을 했던 hole을 확인 못한 채로 아쉽게 떠나 왔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첫 날에 쳤던 Moreland courses에서 다시 쳤는데, hole마다 낮이 익어서 그랬는지 그런대로 쉽게 골프를 마쳤습니다

Golf 치는 5일 내내 날씨가 온화하고 비가 오지 않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아침에 숙소에 방을 비우고 여행 짐을 다 차에 싣고 골프장에 나왔기 때문에 골프를 끝내고는 곧 귀가 길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Van 탑승 팀이 Fredericksburg VA Hampton Inn에 투숙한다고 하여 저희도 Hamton Inn에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덕분에

저녁은 일식 Hibachi 식당에서 함께 하고 호텔에서 마지막 밤을 잘 지냈습니다. 다음날 저희 두 부부는 다른 그룹과 헤어져서 그동안 짐을 싣는 요령을 터득한 탓에 두 집 짐을 다 한 차에 싣고도 그런대로 편히 여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단체 Van을 먼저 보내고 우리는 Alexandria, Va에 있는 Korean restaurant, Hankang에서 의대친우 이중오 부부와 만나 오랜동안 빛 값을 chance를 엿보아 왔다는 신두식 군의 점심을 먹고 귀가길에 올랐는데, 지난 봄과 마찬가지로 GPS가 서쪽으로 돌아가게 하는 바람에 Rt 15로 북상하여 I -80 진입 전, Lewisburg, Pa에 사는 윤희기 군에게 전화를 하니 와서 저녁 먹고 가라고 해서 그 집에 들렀습니다 2-3 시간 전에 전화 걸어 다녀가라고 하는 친구가 아직도 살고 있어 행복했으며, 신두식 군은 윤희기 군을 굉장히 오랜만에 만난다고 하면서 서로 반가워했습니다. Lewisburg Thai food 저녁과 Royal Rivera pear 대접을 받고 오후 7시경 서둘러 최대한의 허용 안전범위 내(?)의 속도로 NJ의 Leonia에 도착한 것이 밤 10시 가까이였습니다. Dr 신의 승용차는 다행히 혼자 넓은 parking lot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Dr 신을 I-80/ I-95 south 로 인도해 주고 Fort Lee 저희 집에 도착한 것이 밤 10시15분!

멀고 긴 자동차 여행, 5일 연속의 강행군 골프를 무사히 마치고 집에 도착하니 지난 한주간의 추억이 꿈만 같았습니다. 내년에도 비슷한 여행을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하니 오늘의 여행이 더욱 뜻깊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무사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행사를 기획 주관하신 Golden Club 흥회장님 내외분의 봉사정신과 능력에 높은 찬사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동안 재미있는 시간을 함께 지냄으로써 더욱 가까워진 여러 회원들과 부인들에게도 이 특별한 인연의 연줄로 더욱 단단해진 저희들의 친밀한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백세 시대

■ 여주영(명예회원)

내년 미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는 사람은 현재 상황에서 볼 때 역대 최고령의 후보가 백악관 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Joe Biden이 재선되든지 Donald Trump가 재선되든지 말이다. Biden은 이미 2020년에 당선될 때 역대 최고령 대통령 기록을 세운 사람이다. Biden보다 3살 아래인 Trump도 현재는 78세를 바라보는 77세다.

사실상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의료기술 발달로 인한 기대수명 증가로 전 세계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 한국의 고령층은 이미 2019년 1월 기준, 765만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0세 이상 인구는 1990년 459명에서 2020년 5581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니 정말 100세시대가 실감난다.

미국도 주변에 80대에서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고 있다. Jimmy Carter 전 대통령이나 Warren Buffet같은 기업가들, Henry Kissinger같은 고령의 정치인들 사이에서 100세 전후까지 왕성하게 활동하는 사람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노인 인구의 증가와 경제력 향상, 그리고 그에 걸맞은 복지서비스 고급화와 다양화로 요즘은 80세도 청년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세상이다. 노인의, 노인에 의한 노인을 위한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라고 하면 너무 나간 걸까?

1972년 Nixon 대통령과 마오쩌둥 중국 공산당 주석 사이에 정상회담을 도출해낸 전 미 국무장관 Kissinger는 미국과 구소련과의 냉전 속 균형을 맞추기 위해 détente를 조성한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그가 지난해 11월29일 100세 나이로 별세했다. 그리고 바로 그 전날 또 한 명의 거성이 유명을 달리했다.

세계 최고 부자인 Warren Buffet의 평생 사업 파트너였던 Charlie Munger(Berkshire Hathaway 부회장)이 99세를 일기로 별세한 것이다. 100세 생일을 한 달가량 앞두고 이승과 이별한 그는 하버드 로스쿨을 나온 변호사이자 세계인들에게 동업의 성공 방법을 일깨운 인물이었다. Munger 부회장은 1976년 Buffet이 Berkshire Hathaway 회장으로 취임한 지 1년만에 그의 정식동업자가 되었다.

그는 매년 Nebraska의 Omaha에서 열리는 Berkshires Hathaway 연례 주주총회에서 수천 명의 주주이자 팬들과 함께 만나는 의식을 거행해 왔다. 버핏이 1인자였다면 그는 영원한 2인자, 그러나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실력자의 아이콘이었다. Munger 부회장의 재산은 약 23억 달러(약 3조원)정도로 추정된다고 한다.

환갑은 이제 더 이상 노인정 같은데서 눈길도 안주는 젊은 나이이다. 그러나 환갑이라 해서 성대한 생일상을 해드리자 하는 시대는 이제 가버렸다. 아마 우리 골든클럽에도 수년 안에 백세 회원들이 나타날 가능성도 기대할 만하다.

이 인류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중인 요즘, 누구나 100세 시대를 노래한다. 기술혁명으로 평균 수명이 늘면서 100세에 가까운 삶을 사는 이른바 백세 문명에 우리 모두 진입한 것이다. 하지만 거동도 못하면서 백세를 산다는 것은 최악의 불행이 아닐까? 하체의 힘이 없어 욕조에 넘어져 죽는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싫다. 준비 없이 맞이하는 백세시대는 저주일 뿐이다.



세계 최초로 초고령화 시대를 만들어낸 일본의 사례가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실감나는 2024년 새해다. 65세 이상이 인구의 14%가 되면 고령사회이고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는 사회학의 기준선이란 것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현재 일본의 인구구성은 30%에 육박하고 있다. 여기 한인사회도 마찬가지다. 베이비부머들은 대부분 은퇴해 건강한 제2의 청춘

들을 살고 있다. 아닌 게 아니라 딱 100이라는 숫자는 완성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만큼, 다들 정말 백세라는 마라톤을 잘 달리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백세 인근에서 화려한 인생에 마침표를 찍는 경우가 잦은 것을 본다.

여하튼 지금 70세인 사람은 100세까지 무려 30년의 시간이 남은 셈이다. 다시 말해 한 세대를 더 살 수 있는 나이란 뜻이다. 백세시대 길라잡이가 필요한 지금이다. 치매를 피하고 정신건강 유지는 물론, 다양한 부상방지 예방법도 배워 놓아야 한다. 동시에 품격있는 삶을 위한 인생설계법과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방법에 이르기까지 백세를 우아하게 맞을 수 있도록 인생 후반부 향해를 위한 또 다른 차원의 공동체들도 필요해 보인다.

한국에서 불린다는 '백세시대' 라는 노래 가사에는 "우리 모두 백세를 향하여,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이라는 소절이 있다. 백세시대를 축복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금부터 인생의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준비해야겠다.

실제로 최근 세계 의학계 hot trend 중 하나는 anti-aging이라고 한다. 100세, 더 나아가 120세까지 살게 된다는 연구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노후준비'는 단순히 '재테크'가 아닌 건강테크, 즉 '컨테크'의 이슈로 넘어갔다는 것. 준비 안 된 100세의 모습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닌 재앙에 가까울 수밖에 없다.

Gene Therapy와 미래를 위한 투자

■ 윤현남(공대 64)

정초에 작년 중학생이 된 손녀하고 deal을 맺었다. 매 학기마다 공부를 잘 해 성적이 좋으면 선물로 10년이 지나면 가격이 10배로 성장할 주를 사주겠다는 것이었다. 내 의도는 공부 열심히 하라는 일종의 뇌물도 아니었고, 어린 나이부터 investment에 눈을 뜨라는 것도 아니었다. 이제는 중학생이니까 옆의 주변만 바라보지 말고 10년 앞이면 어떤 것이 생겨나고 중요해 질 것인가 생각해보라고 조금 push하려는 의도였다. 다행히 손녀의 답이 언제나 하는 "I don't know."가 아니어서 금년 1월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막상 시작하려 보니 10년에 10배 성장하는 stock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미 그렇게 성공한 회사들은 그런대로 꽤 있지만 유년기 회사를 보고 10년 안에 크게 성장할 것을 찾아내는 방법은 눈에 띄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예전 연구소에서 일하면서 좋은 연구과제 찾는 strategy를 보정해서 10여년 전에 Nobel상 같은 큰 상을 받은 발견 또는 기술을 조사해 놓고 이 중 사업화를 시작했고 그리고 성공하면 사회 전체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를 받는 회사들의 주를 사 놓자고 strategy를 만들었다.

첫번째 선정은 스위스의 CRISPR Therapeutics(약명 CSPR)라는 소위 gene editing(유전자 편집) 회사였다. 이 회사는 2013년에 Drs. Emmanuelle Marie Charpentier와 Jennifer Doudna의 연구 project에 근거하여 창립되었으며 2015년에 발표된 연구 결과 (소위 CRISPR/Cas9이라 불리는 방법으로 DNA 내부의 gene을 정확하게 잘라내는 방법)로 두 사람은 2020년 Nobel 화학상을 받았다. 이 회사의 mission은 이 기술을 이용하여 질병을 DNA level에서 치료하는 것이고 현재는 유전병 궁극적으로는 DNA를 수정해서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은 모두 tackle하는 것이다. (조금 더 자세한 기술 설명은 아래에 있음.)

Berkley의 Jennifer Doudna 교수, Umea 대학교의 Emmanuelle Charpentier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2012년 DNA 편집에 필요한 CRISPR-Cas9 시스템을 발견, 보고하고 특허 출원을 제출한 최초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또한 CRISPR-Cas9를 RNA로 프로그래밍하면 게놈 DNA를 편집할 수 있다는 발견을 발표했는데, 이는 생물학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견의 하나로 여겨진다. 2010년 전후에 개발된 CRISPR 유전자 편집은 생물의 게놈을 수정할 수 있는 유전 공학 기술이고 CRSP 회사 사업의 주무기이다. 이는 박테리아 CRISPR-Cas9 항바이러스 방어 시스템의 단순하게 변형한 것이다. 합성 가이드(gRNA)를 Cas9 뉴클레아제에 결합하여 세포에 전달하면 세포 게놈의 원하는 위치에서 정확히 전달할 수 있으며, CAS9은 세포 내에서 기존 유전자를 제거하거나 새로운 유전자를 첨가할 수

있다. 이를 사용하여 연구자들 또는 의사는 환자의 특정 유전자 위치에서 돌연변이를 한 유전자를 침묵시키거나, 유전자의 변화를 유발하기 위해 Cas9 및 주형 RNA를 쉽게 삽입할 수 있는 용이성은 다양한 생물의 다양한 유전자와 관련된 게놈 모델 및 생물학적 과정의 빠르고 효율적인 매핑에 매우 귀중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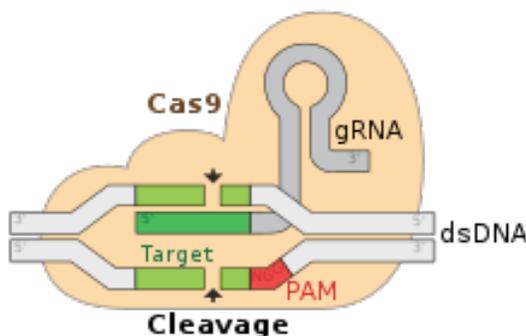
CRISPR회사는 최근(12/7/23 그리고 1/9/24)에 2개(Sickle Cell Disease(scd) 그리고 beta-thalassmia)의 FDA 승인을 받았다. 이는 회사로서의 첫 승인일 뿐이 아니라 전 gene-editing industry

로서도 첫 승인이었다. Scd는 희소한 유전병으로 사람의 적혈구 안의 hemoglobin은 산소는 온 몸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 hemoglobin을 만드는 유전자가 변형하면 불량한 hemoglobin(banana shape vs 정상 HG의 disc shape)을 만든다. 불량 HG는 산소를 많이 흡수하지 못하고 혈관들은 막아 버리기 때문에 환자들은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정기적으로 수혈을 받아야만 한다.

이번에 승인받은 치료법은 환자의 척추 bone marrow에서 stem cell을 추출하여, 그 세포의 DNA에서 파손된 BCL11A 유전자를 CRISPR 방법을 사용해 잘라내고 그 자리에 정상적 BCL11A 유전자를 삽입한다. 이렇게 정상화된 stem cell을 약 2개월 정도 배양한 뒤 주사로 bone marrow 부근에 투입한다. FDA에 제출된 데이터에 따르면 이 치료법은 1회 infusion으로 대상자 중 97%가 치료 후 최소 18개월 동안 심각한 통증 위기를 경험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치료법은 베타 thalassmio로 알려진 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도 비슷한 결과를 가져왔다.

비교적 CRISPR의 기술과 치료방법을 상세하게 기술한 이유는 앞으로 10년 후의 의술이 얼마나 바뀔 수 있을 것인가를 전하고 싶었다. Gene editing 전문가들은 병의 근원인 유전자를 알아내기만 하면 효과적인 gene therapy를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CRISPR에서만 해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project 가 oncology, regenerative medicine, rare diseases, type-1 diabetes 등등이 있다. 한 가지 결점이 있다면 현재로 치료비가 \$2 million 정도라 한다. 엇그제 신문에서 Saudi Arabia에서 CRISPR 치료법을 승인했다고 한다. Perhaps they are the only ones who can afford it!

다시 손녀와의 deal로 돌아와서 FDA 승인받은 지 한달이 지났는데 주 값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 아마 2백만\$의 치료비를 보고 이걸 감당할 사람이 어디 있겠나 하고 돈 벌리는 것 보고 주를 사든지 하자 라는 태도인 것 같다. 어차피 10년을 보고 산 주인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기다려 보자.



회원 명단 (114명 / 2024-1-25)

강교숙	김병순	박희병	윤선구	이흥빈	최한용 최학주 추재욱 한영수 한용오 한대진/ 안용희 허용웅 허유선 홍사만 홍정표 홍지복 홍종만/ 홍예경
강애드	김상만	배상규	윤상영	임도혁	
강영선	김승호	성기호	윤재욱	임호순	
계동휘	김영덕	손갑수	윤종숙	정도현	
고애자	김영만	손경택	윤현남	정수일	
곽상준	김우영	손대홍/	이강홍	조달훈/	
곽선섭	김익성	남종현	이민제	조승자	
곽승용	김정필	손옥화	이상무	정해민	
구달희	김종윙	송근숙	이상원	조상근	
권문웅	김창수	송용길/	이승준	주상선	
권정덕/	김충정	송현자	이준	주재양	
홍선경	김치갑	송학린	이대연	진봉일	
권영대	김태일	송혜순	이대영	천병수/	
권태전	김한중	신진식	이영범	천종화	
금영천	김현중	신응남	이용대	최구진	
김광수	노용면	오순문	이전구	최병우	
김광현	민준기	오용호	이종대	최수용	
김동건	박기환	오인석	이종석	최순채	
김문경	박상원	우규환	이준행	최준희	
김문연	박준구	유무영	이행순	최진영	

2024년 연회비 납부 명단 11명 / \$1,100 / 2024-1-25)

강애드
고애자
김광수
민준기
박희병
신진식
이상무
이상원
임호순
정해민
홍지복

2024년 후원금 기부 명단 (3명 / \$1,600/2024-1-25)

신진식 300
임호순 300
정해민 1000

2024년 입회비 납부 명단

발전기금 기부명단 (1명 / \$30,000 / 2024-1-25)

이준행 30,000

골든클럽 회비 납부 양식

골든클럽 2024년 행사 일람 (2024-1-25)

1월	24일 (수)	Zoom 경제 세미나 (14명 참석)
2월	16일(금)	편집위원 운영위원 간담회
3월	23일(토)	신년교례회 - Double Tree Hotel, NJ
4월	12일(목)	Hiking
	25일(목)	Golf Outing -Sunset Valley Golf Club
5월	23일(목)	동창회 춘계 골프대회 - Pelham Bay Golf Club
6월	13일(목)	Golf Outing
7월	18일(목)	Golf Outing
8월	15일 (목)	Golf Outing
	22일(목)	골든클럽 피크닉
9월	12일(목)	Golf Outing
10월	14일(목)	동창회 추계골프대회
11월	7일(목)	Golf Outing
12월	7일(토)	뉴욕지역동창회 송년회 -Double Tree Hotel
	9일-14일	Myrtle Beach Golf Trip
3월	22일(토)	신년교례회



2월 생일을 축하합니다.

고애자 (사대58) 여주영 (명예)
권문웅 (미대61) 이영범 (공대71)
김익성 (상대53) 이종석 (상대57)
김정필 (공대71) 한영수 (의대61)
김창수 (약대64)
김현중 (공대63)
손옥화 (생과69)

Zelle 사용안내: 골든클럽에 회비/후원금/참가비등을 Zelle 로 납부하실 분은 **keiusainc@gmail.com** (SNU Golden Club)에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때 message란에 영문이름과 내용을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회비 납부 양식을 Check (payable to **SNU Golden Club**)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 **SNU Golden Club, 44 Macintyre Lane, Allendale, NJ 07401**

성명: (한글)

(영문)

생년월일:

입회비 \$200

단과대:

학과:

입학년도:

졸업년도:

연회비 \$100

전화번호:

Email:

후원금 (\$))

주소 (Home):